

## 생각도 못했는데... “어! 문화가 찾아왔네”

### 소외계층 속으로 ‘희망 대한민국 문화 프로젝트’



춤추며 짜인 문화 그물에 갇히면 행복하다.

밤새 줄을 서야 볼 수 있는 아이들 가수 콘서트도, 일주일 생활비를 몽땅 털어야 즐길 수 있는 뮤지컬도 부럽지 않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전국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단체들은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가동,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151개로 대폭 늘렸다. 모두가 문화로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짜인 프로그램이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를 채울 준비에 나섰다.

#### ◆ 전국 방방곡곡 소외 지역 찾아

산골이나 섬 마을에서 뮤지컬, 오페라 관람은 여전히 엄중생심이다. 고작 해아 TV로 보는 방법밖에 없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산도 넘고 물도 건널 각오를 한 이들을 소개한다.

지난 4월 20일 서울 홀트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 639개 학교를 찾아 전국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9교시-꿈꾸는 문화열차(문화열차)’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올해 12월 29일까지 잡혀 있는 일정을 보면 비보이팅 ‘깁블러크루’의 퍼포먼스에서 ‘문지 마 옥 남매’ 코믹 연극, ‘베토벤과 친구들’ 클래식 공연까지 연병별, 관심별로 프로그램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공연을 본 학생들은 문화열차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해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라며 행복한 수다를 늘어놓고 있다.

문화열차를 탄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다. 물론 문화열차는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일정과 공연 내용은 문화열차 홈페이지(www.intoculture.or.kr)나 전화(02-744-7063)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국립문화예술단체 오페라단, 합창단, 발레단, 정동극장까지 가세했다. 특히 오페라단은 창단 이래로 지방 구석구석 아리아의 감동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오페라 명작으로 손꼽히는 ‘마술피리’와 ‘피가로’를 준비했다. 전남 목포, 강원 동해 등 6개 도시 순회를 앞둔 오페라단의 열기는 아주 뜨겁다.

지난 5일에는 강원 동해 문화예술센터에서 ‘마술피리 콘서트’ 공연이 준비됐다. 상세 일정은 국립오페라단 홈페이지(www.nationalopera.org) 연간 일정을 참조하거나 전화(02-586-52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문화 친구 덕분에 방과 후에도 외롭지 않아요

하룻길에 그리 반갑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 직장을 나간 부모님을 빈집에서 홀로 기다리거나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 수업 후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친구들이 뜻밖에 많다고 한다. 이들의 공간을 채워 줄 문화 프로그램도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방과 후 교실’이 바로 그것. 문화부



◆ 지난 4월 충북 영동군 용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꿈꾸는 문화열차의 ‘문지 마 옥 남매’ (좌) 연극을 관람했다. 학생들이 돌발 퀴즈 문제 정답을 서로 말하곤 하며 아우성이다. (사진-꿈꾸는 문화열차 사업단 제공)



◆ 지난해 국립오페라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충남 보령시를 방문해 오페라 ‘카르멘’을 선보였다. (사진-국립오페라단 제공)

는 올 연말까지 부산, 대구 등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 전국 500개 초등학교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프로그램 제목만 봐도 벌써 신이 난다. ‘즐거운 UCC 만들기’, ‘남사당놀이’, ‘창의력을 키우는 연극 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 시내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연극교육)을 진행하는 김시내 선생님(27·서울문화재단 소속)은 “수업 진행이 느리더라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반응이 폭발적이고 소극적이던 친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전했다.

또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도서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책을 보며 읽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도 마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천 문학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에서

서민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책다모아’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적합 지역을 선정해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시 강화군 ‘화개 가족 도서관’, 강원 동해시 ‘무릉 작은 도서관’ 등 모두 61곳이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으로 지원한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작은 도서관을 찾아 독서삼매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운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sml)와 전화(02-3704-2753)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손끝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거장 화가의 작품에 드러난 색채에 수많은 사람이 감탄한다 하더라도 주위에는 눈으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눈으로만 보는 대신 손끝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생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위해 ‘손으로 읽는 그림책’을 마련, 6월 매주 목요일마다 선보인다.

여기서는 박물관 대표 유물 10점을 소재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또 그림책 제작 전문 강사를 도움으로 줄거리를 촉각 이미지로 표현해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다. 박물관 유물에 대한 이해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문화로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중앙박물관(02-2077-9297)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 청소년이 직접 전통악기 연주를 배우면서 전통음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부산 해송학교, 전남 함평 영화학교 등 지

방 특수학교 12곳에 3년 동안 국악 선생님을 파견한다.

국립국악원은 “선생님이 연말까지 총 30회 동안 직접 찾아가 학생들 수준에 맞춰 국악을 알려주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다”며 “대화에 출전해 상을 받은 학교가 3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장애청소년 국악 배움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02-580-3046)로 문의하면 된다.

#### ◆ 부모님 나라 문화 모두 익혀요

지난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만난 일본 출신 나노미야 다카코 씨(45)는 “한국 엄마처럼 아이들과 문화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엄마는 잘 몰라 문화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느낌”이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마련된 행사가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2-3회에 걸쳐 다문화 가정 100명을 미술관 전시회에 초대할 예정이다. 친절한 설명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술관 측은 아이들 방학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다문화가정의 문화 생활을 위해 ‘러브 인 아시아(Love in Asi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출신 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 소개, 내국인의 문화가정 인식 개선 사업이 주를 이룬다. 문화부는 특히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역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거점 지역으로 선정,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한국 음식, 한글 등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 가족이 함께 부모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 체험행사 등을 운영한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 오영희 씨는 “소득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화 양극화를 좁히고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며 “경제도 어렵지만 문화를 통해 모두가 꿈과 희망, 그리고 친구를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덕분에 전국 어디나, 누구에게나 문화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 문화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행복과 꿈을 끌어올릴 차례다.

(자료제공: korea.kr) 신승우 기자 ssw@eduyonhap.com





## 집에 있는 태양초 고추장, 해찬들인지 확인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맛이 다르니까요, 믿음이 다르니까요. 우리 나라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맛있게 매운 맛-태양초 고추장 찾을 땐 꼭 해찬들을 확인하세요.